

교계기자 5명이 안내하는 기도도량 36곳의 모든것

최근의 어려운 여건을 기도를 통해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원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럴때 평소 가보고 싶었던 기도도량이나 이름난 기도도량을 찾아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좋은 수행방법이 된다.

불교시대에서 펴낸 <한국불교 기도도량>은 기도도량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자상한 안내서다. 기도성지 안내서로서는 처음으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를 묶고, 여기에 5대 적멸보궁과 최근 새로이 떠오르는 기도성지 36곳을 총망라했다.

필진이 모두 교계 기자들이라는 점도 이 책의 신뢰성과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정성운(현대불교신문) 재한

불교시대사 '한국불교 기도성지' 펴내

기(법보신문) 이성수(주간불교) 조병환(불교신문) 이재우(월간 금강) 기자 등이 발로 뛰며 현장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그런만큼 기도도량의 생생한 현상이 그대로 전달된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으로는 통도사, 상원사, 정선 정암사, 영월 법흥사, 설악산 봉정암 등 5곳, 관음도량으로는 양양 낙산사 종현암, 남해 금산 보리암, 동해 두타산 관음암 등 8곳이 소개돼 있다.

지장기도성지로는 철원 심원사, 고창 도솔암, 완주 송광사, 서산 개심사 등 4대 지장도량을 포함한 6곳이, 약사도량으로는 대구 팔공산 갖바위와 청양 장곡사 등 2곳이 실려있으며,

문수도량으로는 서울 북한산 문수사와 나한 기도성지로 청도 운문사 사리암과 합천 해인사 회랑대 등 6곳이 담겨 있다.

또 서울 삼각산 도선사와 강양 구인사 등 8곳을 최근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기도성지로 포함돼 있다. 이들 기도성지는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을 선정해 분류한 것이다.

구성은 해당 사찰마다 전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영험담을 비롯해, 기도도량이 된 내력, 사찰 역사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기도법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며, 교통편과 주변 명승지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자



료사진도 풍부하게 실어 입체적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자칫 빠져들기 쉬운 기록적 요소는 배제하려고 애쓰면서 기도의 본질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책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영험은 초월적 절대자에 의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회를 통한 죄업의 소멸과 정진을 통한 내면적 변화가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값 7천원.

한영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밀교사전' 나왔다

주보윤교사 10년작임
밀교용어 총망라 수록



학자도 아닌 현직 교사가 <밀교사전>을 펴냈다. 국판 크기에 1천여쪽의 분량으로 밀교와 관련된 1만여 단어가 수록된 <밀교사전>(홍법인 판)은 방대하지는 않지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주보윤 교사(39, 진선여교)는 10년간 한결같이 이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 전심전력했다.

"학부시절 밀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큰 불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밀교를 미신적 주술체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군요. 그래서 밀교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전의 완성을 결심했습니다."

주교사는 <밀교사전>을 만들기 위해 팔만대장경과 한글대장경에서 밀교와 관련된 용어를 모두 뽑았다. 밀교 경전과 밀교 관련서 및 논문을 전부 읽고, 중국·일본 밀교와는 다른 한국 밀교의 특성을 찾는 데도 주력했다.

밀교 경전 및 교리와 연관된 대승 경전을 수록하고, 밀교 종단인 진각종의 교리와 의식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도 함께 실었다. 또 공과 연기 등 밀교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승불교의 용어도 설명해 놓았다. 주요 경전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고려대장경과 한글대장경의 권 수를 표기해 공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왔다. 값 7만원.

한영우 기자

해외신간

가브리엘을 만나다

선(禪) 수행자가 대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났다. 스테판 미첼이 발간한 <가브리엘을 만나다(Meetings With the Archangel: A Comedy of the Spirit)>는 유대인으로서 불교에 귀의하고 불법을 구도하는 한 청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선 수행자' 등 3편의 소설적 수필로 구성돼 있으며, 동일한 등장인물이 나오는 각 에세이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유대인 청년의 정신적 성장을 조명하고 있다. HarperCollins 판.

조심스런 질문

<조심스런 질문(Mindful Inquiry in Social Research)>의 저자 제프리 사피로는 경제, 정치, 종교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의 해소를 20세기를 주도한 종교계와 철학계의 마지막 담론이라고 설명하고, 다윈화 된 패러다임과 시스템으로 굴곡된 현대사회의 인식론은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 철학들이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언하고 있다. Sage 판.

불교로의 권유

젊은이나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본래의 모습, 바른 종교관'을 알파카로써도 쉬운 언어로 제시하는 안내서 <불교로의 권유>가 나왔다.

불교를 '인간학'이자 '행복학'이라고 정의하는 저자 야마자키 다즈야키(山崎龍明)는 특히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생명'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을 기초로 생명의 기반, 생명의 존엄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방정당출판(方定堂出版) 판.

수행에도 지름길 있는가

골드스테인 '통찰의 체험'

故 현음스님·이금주교수 번역

오랫동안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고 현재 미국에서 수행센터를 개설해 일반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골드스테인(J. Goldstein)이 저술한 <통찰의 체험>(한길 판)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삼발라(Shamshala)출판사에서 90년 출간된 <The Experience of Insight>를 일찍이 현음스님과 이화여대에 몸담았던故 이금주교수가 공동 번역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수행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일기식으로 정리해 놓아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식으로 요점을 정리해 놓았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수행에 관한 다른 책들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수행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이 책의 매력이다. 수행을 설명하기 위해 도장사상 등 동양철학을 폭넓게 녹여 낸 것도 특이하다.

경전 말씀이나 일화 등을 섞어가며 설명해 놓아 감의를 들는 듯한 느낌으로 읽을 수 있다. 값 5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은 산 불은 불	정 한 주	민음사
2	산에는 꽃이 피네	법 정	동쪽나라
3	아랑외로 배우는 불교	반 영 규	솔바람
4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5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통	효림
6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우당
7	100원100책(불·보살·선종편)	고영·고영	대원정사
8	화두, 해능과 세익스피어	김용욱	통나무
9	화두 짓는 법	태평권규	토방
10	생방송의 기도법	일 타	효림

구입문의: (02)737-0695

정병삼교수 '일연과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문화는 물론 한국불교사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간직하고 있는 사서이다. 이 책을 찬술한 일연스님 역시 선교를 두루 섭렵한 선사로서 고려 후기 붕괴의 침입 등 오랜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로를 연 고승이다.

정병삼 교수(숙명여대 한국사학)가 펴낸 <일연과 삼국유사>(새누리 판)는 <삼국유사>와 일연스님을 심도있게 조명한 학술서로 스님의 생애와 <삼국유사>의 주요 부분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책 전반부에서는 일연스님의 출가수행에서부터 중앙 고단 활동, 선사상, 교유인물 등을 연보와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기이(紀異)편' '홍법(興法)편' '탑상(塔像)편' 등에서 <삼국유사>를 대표할 만한 항목 40여편을 내용별로 가려 뽑아 번역하고 간단한 주석을 달아 놓았다. 값 1만원.

한영우 기자

'구정가 판매전'

책방 여시아문, 15일부터

책방 여시아문이 불서보급과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취지로 15일부터 구정가 판매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행사에서는 장경각이 펴낸 <성철스님 법어집>(전11권)을 사는 고객에게 성철스님의 행장이 기록된 5부작 비디오테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10여개 출판사에서 내놓는 2백여종의 책이 정가보다 30~40% 정도 싸게 판매된다. (02)737-0695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갈까

해정스님 지음

이야기 들듯 읽다보면 삶의 법문

어린 행자 무릎에 안고 열려주고 꿀밤 주고 불우물을 꼬집으면 제법 힘을 쓰며 임겨든다. 요즘 나 넘어지겠다 하고 허허로움도 즐겨본다. 스님과 어린 행자는 과연 무엇을 주고 받았을까.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갈까>는 자신에게, 타인에게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라는 화두로 세상을 살아보라고 말한다. 일상의 단편을 모은 수필집이지만 마치 법문을 듣는 듯한 교훈이 서려 있다. 지금까지의 슬러생활에 대한 느낌과 스님으로서 불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다. <동원사, 6천5백원>

함께 사는 아름다움

정화스님 지음

'나와 나의 것'에서 벗어날때 자유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빈 마음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움'과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마음의 차이에 있다. 우리의 삶은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자기 한정'이란 업에 매여있다.

<함께 사는 아름다움-금강경·반야심경 풀이>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함께 사는 아름다움'의 진리가 담겨있음을 말하고, 모든 불자들이 이 경전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한정'의 업을 벗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공사, 1만원>

마음이 마음이 뭐하니

나상호 지음

성불의 길 자신에게 있다는데...

배우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늘 살아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바가 없어도 잘 배우게 되는 길이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을 때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지혜의 등불이 바로 상불로 가는 청경임을 깨닫게 한다. 생활의 단편들 속에서 성불에 이르는 길이 바로 자신의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수필집.

마음따는 이야기,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 등 수행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동남출, 6천원>

일타크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알려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쉬운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크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크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크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크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로 다시금 세히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운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불인 크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와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신국판 5,000원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판 / 3,500원

일타 크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강>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어번(無어번)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범공상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일타크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